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종단적 매개효과*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 Adolescents

1차원고접수: 2025.07.10. 수정원고접수: 2025.08.28. 최종게재결정: 2025.09.21.

유위¹ · 최지영²

¹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²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Wei, Liu¹

Choi, Jiyoung²

¹Dep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²Dep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 308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SPSS 22.0과 Mplus 8.0을 통해 잠재성장모형(LGM)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뚜렷한 변화 추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초기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초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으며, 초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초기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각각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초기수준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종단적 매개효과는 변화율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 초기 적응 단계에서는 스트레스 조절 지원이, 후기에는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건강한 문화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중도입국 청소년, 이중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longitudinal changes i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 adolescents, and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Data from 308 adolescents in the second wave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2019-2023) were used. Results showed that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life satisfaction decreased over time, while cultural adaptation stress showed no clear trend. Higher initial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was linked to lower initial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higher initial stress was related to lower life satisfaction. Moreover, both the initial level and rate of change i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significant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had an indirec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cultural adaptation stress, though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at the change rate was not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upporting immigrant adolescents with stress management in the early adaptation stage and promoting bicultural acceptance and cultural identity in later stages are essential for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eywords *immigrant adolescents,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cultural adaptation stress, life satisfaction*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전문포스터 논문으로 발표함.

이 논문은 2024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to 최지영 (Choi, Jiyoung)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Dep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E-mail.** choi0122@hnu.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 노동이주, 난민 수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 수는 2014년 약 5,602명에서 2024년에는 약 11,987명으로 9년간 2.14배 증가하였다(교육부, 2024).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청소년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19). 이들은 낯선 문화와 새로운 언어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이중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노연희, 신서원, 2024). 대표적으로 언어장벽으로 인한 학습부진, 문화 차이로 인한 문화적 충격이나 차별과 따돌림 등을 경험한다(김소영, 윤기봉, 2016). 중도입국 청소년은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과는 달리,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한국에 입국하여 언어, 문화, 교육 체계 등에 대한 적응 과제를 동시에 경험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발달적 특성을 지닌다(유위, 최지영, 2024). 이러한 발달적 특성은 중도입국 청소년에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중문화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문화 간 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이중적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중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경제, 정치, 사회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홍영균, 2017). 따라서 이들이 건강한 자아발달을 하고 미래사회에 유용한 인재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교육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는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요한 핵심 지표로서 이후 성인기까지 삶의 방향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서현석, 김태균, 2020).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도 발달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 청소년이 우

울, 비행 등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서영우, 2016), 학업 및 대인관계도 어려움에 빠지고 긍정적인 성장을 방해하기도 한다(손신영, 2023). OECD(2019)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세계국가에 최하위 수준으로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국에 온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새로운 환경에 들어오고 본국 문화와 한국문화를 경험하며,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으므로 이들은 비다문화 청소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을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비다문화 청소년보다 다문화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가 낮고 가정과 학교 등 환경적 요인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경험함에 따라 문제행동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지적하였다(이상은, 최나야, 2021).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건강, 학업 적응,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많은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 현재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Fujita & Diener, 2005).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다차원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청소년기의 발달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 또래, 학교, 사회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두 가지 문화를 경험하는 점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진선, 오종철, 강영숙, 2021). 즉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처럼, 중도입국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그들이 경험한 문화, 개인적 문화적 태도와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 요인에서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이중문화 수용태도

라고 할 수 있다(정보라, 정문식, 박현승, 2025). 특히 이들은 한국 사회의 주류문화와 자신이 태어난 국가의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이정민, 정혜원, 2024). 이러한 맥락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개인이 두 가지 상이한 문화를 모두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하며, 모국문화와 한국문화 모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진경, 이해정, 2019).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문제가 적고 또래관계와 교사관계 등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학교적응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다(김윤정, 이진향, 2022; 김은혜, 정민아, 2024). 반면에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낮으면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초래되므로 생활 및 학업에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인다(이덕희, 2010; 황희봉, 주은선, 2023; 유위, 왕신계, 최지영, 2025).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자문화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사회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하며(이소연, 2018), 이는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rry, 1997).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김수미, 김현옥, 2022; 박동진, 김송미, 박경아, 2022).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삶의 만족도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유위, 최지영, 2024). 해외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Brown, Gibbons, Hughes의 연구(2013)에서는 이민 1세대와 2세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개인이 자신과 다른 문화권과 접촉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안혜진, 2019). 앞서 언급한 언어장벽이나 문화차이로 인한 심리적 문제,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편견 등이 모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포함된다(백정숙, 김현진, 2020). 이러한 스트레스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우울, 불안 등의 정서문제를 초래하여 결국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김원영, 정나은, 2020),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수용 과정에서 겪는 긴장과 갈등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문화를 적응과정에서 지속적인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낮은 자존감, 또래나 교사관계 회피, 학교생활부적응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권오영, 양계민, 2024; 임지혜, 박봉수, 오선영, 2023). 반면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 경우, 이들이 한국문화를 잘 적응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함으로써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학교생활적응 등 긍정적 발달을 이룰 수 있다(이혜미, 김유미, 2024; 정보라 등, 2025).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이론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선민, 이수현과 이강이의 연구(2019)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김한솔과 김규찬의 연구(2023)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수경의 연구(2020)에서는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이 모두 유지되는 집단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고, 심리사회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높은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그들의 긍정적인 심리적응과 연결

된다는 선행 연구(김승경, 양계민, 2012)를 고려하면,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관련성이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긍정적인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가져야 한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경우 문화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심리적으로 안녕감을 경험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은혜와 배상률의 연구(2017)에서 입국 전 부모와의 별거기간이 한국에서 형성된 가족환경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권오영과 양계민의 연구(2024)에서는 교사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라, 정문식과 박현승의 연구(2025)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는 횡단적 관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지만 문화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없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꼭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는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형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험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을 수반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통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닌다(Park & Bae, 2021). 따라서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단순히 삶의 만족도를 직접 높이는 긍정적 요인일 뿐 아니라,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모두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들의 관

계를 규명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문화 청소년 패널을 사용해서 삶의 만족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한 연구(이진선 등, 2021)에서는 3년 동안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고하였다. 이는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발달 관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종단적 연구를 통해 발달궤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종단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별 변화 궤적과 인과적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잠재성장 모형은 초기수준의 차이와 변화율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정하는 데 유용한 분석이다. 또한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어떤 시점에 어떤 경로로 영향이 미치는지를 밝혀냄으로써, 횡단분석으로 알 수 없는 장기적 인과관계의 방향을 알고 성과 누적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주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적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종단적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9년 (1차)부터 2023년(5차)까지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 조사 2기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모집단 중 중도입국에 해당하는 청소년 308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은 163명(52.9%), 여학생은 145명(47.1%)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중 10세가 239명(77.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부모의 외국인 여부는 부모 모두 외국인 177명(57.5%), 어머니 117명(38.0%), 아버지 14명(4.5%)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이중문화 수용태도

이중문화 수용태도 척도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문화와 모국문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것이며 노충래와 홍진주의 연구(2006)에서 활용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나는 모국의 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를 즐기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등 10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Cronbach's α 는 1차년도 .74, 2차년도 .73, 3차년도 .77, 4차년도 .70, 5차년도 .79로 나타났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측정한 것으로 Hovey와 King(1996)이 개발하고 노충래(2000)가 변안 및 수정한 9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한다’ 등 9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Cronbach's α 는 1차년도 .89, 2차년도 .89, 3차년도 .90, 4차년도 .90, 5차년도 .89로 나타났다.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척도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 것으로 ‘청소년발달지표조사’에서 사용한 측정지표를 인용하여 다문화청소년패널 2기 1차년도 조사에서 수정한 3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사용된 문항은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Cronbach's α 는 1차년도 .77, 2차년도 .84, 3차년도 .83, 4차년도 .85, 5차년도 .85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의 5년 간의 반복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변수들이 시간에 따른 개인 내 변화양상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각 변인의 초기치와 변화율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종단적 구조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특히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편향 보정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종단적 매개효과 분석은 한 시점에서의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는 횡단적 매개분석과 달리,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화 궤적을 바탕으로 변수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며, 어떤 발달적 경로를 통해 결과에 도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종단적 인과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변수 간의 변화 양상이 동시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단순한 변수 간 영향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매개과정을 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둘째, Mplus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의 각 변인별 무변화 모형과 성장모형을 비교 분석하여 적절한 모형을 설정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분석하였다.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 및 변화율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수간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의 부트스트랩(Bias-Corrected Bootstrap) 방법을 활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비교적 일정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은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에 부합하였다(Kline, 2011). 또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는 대부분의 시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11 \sim .39, p < .05$)을 보였으며,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여러 시점에서 부적 상관($r = -.12 \sim -.30, p < .05$)이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는 다수 시점에서 부적 상관($r = -.12 \sim -.34, p < .05$)이 확인되었다.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 = 3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40***	1													
3	.19**	.34***	1												
4	.18**	.37***	.28***	1											
5	.04	.34***	.34***	.42***	1										
6	-.15**	-.10	-.15**	.01	-.06	1									
7	-.17**	-.25***	-.30***	-.14**	-.21*	.41***	1								
8	-.22***	-.26**	-.29***	-.15**	-.12*	.31***	.50***	1							
9	-.08***	-.19**	-.17**	-.17**	-.18**	.25***	.36***	.44**	1						
10	-.09	-.15***	-.14**	-.14**	-.18**	.25***	.33***	.43***	.47***	1					
11	.39***	.26***	.18**	.02	.07	-.34***	-.30***	-.22***	-.22***	-.12*	1				
12	.23***	.39***	.26***	.20***	.19**	-.19***	-.29***	-.31***	-.23***	-.19**	.37***	1			
13	.12*	.18**	.30***	.25***	.19**	-.08	-.12**	-.26***	-.21***	-.12*	.27***	.38***	1		
14	.02	.11*	.06	.29***	.26***	-.05	-.16**	-.12*	-.22***	-.16***	.13**	.33***	.44***	1	
15	.12*	.22***	.19**	.24***	.35***	-.13*	-.13**	-.17**	-.21***	-.20***	.13*	.38***	.38***	.50***	1
평균	2.95	2.94	2.94	2.90	2.90	1.35	1.35	1.35	1.41	1.37	3.34	3.24	3.23	3.20	3.16
표준편차	.43	.42	.43	.37	.43	.45	.43	.42	.43	.44	.56	.58	.57	.62	.63
왜도	.09	.22	-.36	.25	.00	1.53	1.18	1.35	1.03	1.20	-.55	-.51	-.24	-.52	-.38
첨도	.14	.39	2.18	.46	.97	2.22	.40	1.15	.31	.85	.01	.59	-.45	.39	-.13

주. 1. 이중문화 수용태도1차, 2. 이중문화 수용태도2차, 3. 이중문화 수용태도3차, 4. 이중문화 수용태도4차, 5. 이중문화 수용태도5차, 6. 문화적응 스트레스1차, 7. 문화적응 스트레스2차, 8. 문화적응 스트레스3차, 9. 문화적응 스트레스4차, 10. 문화적응 스트레스5차, 11. 삶의 만족도1차, 12. 삶의 만족도2차, 13. 삶의 만족도3차, 14. 삶의 만족도4차, 15. 삶의 만족도5차.

* $p < .05$. ** $p < .01$. *** $p < .001$.

2.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을 추정하기 전에 각 변인의 시간에 따른 성장궤적을 확인하였다. 세 변인의 변화함수를 설정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과 성장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에서 성장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장모형의 초기치, 변화율의 평균과 상관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초기치 평균은 2.95, 변화율은 -0.02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평균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상관은 -0.02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기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은 경우 이후 변화율은 낮아져,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초기치의 평균은 1.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변화율은 0.01로 유의하지 않아, 중도입국 청소년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뚜렷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0.01로 유의하여, 이는 초기 시점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던 청소년일수록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 평균은 3.32, 변화율 평균은 -0.04로 유의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폭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0.02로 나타나 유의하였는데, 이는 삶의 만족도의 초기 수준이 높았던 청소년일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표 4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지만 RMSEA는 .08 미만이고 TLI와 CFI는 .90 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이 양호한

표 2. 각 변수들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χ^2	df	p	CFI	TLI	RMSEA
이중문화 수용태도	무변화	47.78	9	.00	.82	.81	.12
	성장	17.36	10	.67	.97	.97	.05
문화적응 스트레스	무변화	29.55	9	.00	.94	.93	.07
	성장	15.77	10	.10	.99	.98	.01
삶의 만족도	무변화	58.41	9	.00	.83	.81	.02
	성장	16.11	10	.10	.98	.98	.05

표 3. 선정모형의 초기치, 변화율의 평균과 상관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변화율 상관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이중문화 수용태도	2.95**	0.08**	-0.02***	0.01***	-0.02**
문화적응 스트레스	1.35***	0.09**	0.01	0.01***	-0.01**
삶의 만족도	3.32***	0.14***	-0.04***	0.02***	-0.02*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구분	χ^2	df	SRMR	CFI	TLI	RMSEA
연구모형	178.26***	93	0.07	.92	.91	0.06

*** $p < .001$.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수영, 2016; Hu & Bentler, 1999).

그리고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간 종단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먼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초기치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이중문화 수용태도 초기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59, t = -5.37, p < .0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이중문화 수용태도 초기치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02, t = 0.51$). 또한,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변화율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변화율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beta = -0.35, t = -3.45, p < .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초기치는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beta = 0.72, t = 4.11, p < .001$). 그러나 이중문화 수용태도 초기치는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0.02, t = 0.20$). 한편, 이중문화 수용태도 변화율이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여, 이중문화 수용태도 변화율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변화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beta = 0.89, t = 3.92, p < .001$).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초기치가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beta = -0.54, t = -3.25, p < .0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는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0.07, t = 0.95$).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0.32, t = -0.83$).

4. 종단적 매개효과 분석 결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매개효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이중문화 수용태도 초기치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를 거쳐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간접효과 계수는 0.28이었으며,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은 0.07, 상한값은 0.38로 나타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

표 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
이중문화 수용태도 초기치 →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0.59	0.11	-0.61	-5.37***
이중문화 수용태도 초기치 →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	0.02	0.04	0.08	0.51
이중문화 수용태도 변화율 →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	-0.35	0.10	-0.52	-3.45**
이중문화 수용태도 초기치 → 삶의 만족도 초기치	0.72	0.18	0.54	4.11***
이중문화 수용태도 초기치 → 삶의 만족도 변화율	0.02	0.08	0.04	0.20
이중문화 수용태도 변화율 → 삶의 만족도 변화율	0.89	0.22	0.63	3.92***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 삶의 만족도 초기치	-0.54	0.17	-0.39	-3.25***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 삶의 만족도 변화율	0.07	0.07	0.15	0.95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 → 삶의 만족도 변화율	-0.32	0.38	-0.15	-0.83

** $p < .01$. *** $p < .001$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간접효과 및 유의성 검증

경로	간접효과		95% CI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Lower	Upper
이중문화 수용태도 초기치 →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 삶의 만족도 초기치	0.28	0.21	0.07	0.38
이중문화 수용태도 변화율 →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 → 삶의 만족도 변화율	0.06	0.04	-0.38	0.26

의수준 5%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즉 이중문화 수용태도 초기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가 낮아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높아지는 간접 경로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이중문화 수용태도 변화율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을 거쳐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비표준화 계수는 0.06이었고, 95% 신뢰구간은 하한값 -0.38, 상한값 0.26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경로에 대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패턴을 파악하고,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먼저,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언어적 장벽, 주류 문화와의 상호작용이 점진적으로 누적되면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감소가 지속된다는 것은, 한국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문화적응의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을 반영한다(김재훈, 황지연, 2023). 또한, 초기 수용태도가 높았던 청소년일수록 이후 변화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이러한 태도가 일정 수준 이상 형성된 경우에는 이후 급격한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이소연, 2018; 황희봉, 주은선, 2023)에서 보고된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안정적 또는 증가 경향과는 상이한 양상이다. 이는 본 연구가 중도입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 및 교육 체계에 대한 이중 적응의 부담과 정체성 갈등을 보다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특수한 집단의 변화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초기 적응 과정에서 한국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지와 활동이 중요하며(범령옥, 임선아, 2024), 이후에는 한국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언어지원과 양국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김민호 등, 2014; 이영주, 이수경, 박륜경, 2017).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김원영, 정나은, 2020)와는 달리 중도입국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뚜렷한 증가 또는 감소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초기 스트레스 수준이 이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보다는 개인 간의 초기 경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적응, 또래 관계 형성, 진로 탐색 등 학년이 올라갈수록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기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변화율이 낮은 경향은,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환경에 놓인 청소년은 이후 변화 없이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 시간에 따라 일정한 궤적을 보이며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개별 변인 간의 초기 수준이 이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돕

기 위해 적응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응 단계에 따라 중도입국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문화적 요인과 발달적 요인을 도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변인 간 종단적 관계에서 초기 이중문화 수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유승희의 연구(2020)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초등학교 4학년에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태도를 가지면 문화적응으로부터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변화율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중학교 2학년 동안에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증가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화에 있어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임을 나타낸다.

초기 이중문화 수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의 초기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와 일치한다(박동진 등, 2022). 또한 초4 시점에서 중2 시기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 증가율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이 학년이 올라가며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증가한다면 삶의 만족도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rikson(1968)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이다. 청소년 개인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다문화 청소년 연구에서도 자아정체성 및 문화정체성의 긍정적 확립은 학교적응과 심리적 웰빙을 촉진하는 중

요한 기제로 보고되고 있다(Berry, 1997; Phinney, 1990).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에서 지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해 인식하면서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적응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삶의 만족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중도입국 청소년이 건강한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나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초기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에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초기에 언어나 문화로 인하여 겪는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초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4 시기에 경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초4에서 중2 시기에 삶의 만족도 변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율이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만 이후 삶의 만족도 발달에 결정적인 예측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아동은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지만, 발달적으로 회복탄력성이 성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할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갈수록 겪는 스트레스의 정도보다는 사회적 지원, 환경적 지원 등이 삶의 만족도 변화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 이론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청소년 발달은 다양한 체계와 상호작용에 의해 다층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향후 성별, 출신국가, 사회적지지 등 다양한 변수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집단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초기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단순히 문화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유위와 최지영의 연구(2024)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한국 사회와 자신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닌 중도입국 청소년일수록 문화적 긴장과 갈등이 완화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중문화 수용태도 변화가 삶의 만족도 변화로의 직접적 경로로 이어지는 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는 이에 결정적인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초기에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이 긍정적인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갖게 되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는 자아정체성 및 문화정체성의 확립과 같은 발달과업의 성공적 수행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이룬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초기 적응 단계에서는 언어 문제, 학업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발달 자체가 삶의 만족도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해석은 Berry(1997)의 문화적응 모델과도 부합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초 4 시기에 적응초기 단계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 긴장, 언어문제 등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이 상대적

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적응초기 단계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비하고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중2 시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적응심화 또는 통합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는 다양한 문화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후기과정에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발달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핵심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응 단계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스트레스 조절과 한국문화체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후기에는 다양한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상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정체성 발달에 대한 연구와 문화적응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다양한 하위 요인을 구분하여, 어떤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 초4부터 중2 시기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문화적 요인을 확인하였다. 추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변화 패턴을 파악해서 문화적 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상정하였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Berry, 1997; Schwartz, Unger, Zamboanga, & Szapocznik, 2010). 예컨대, 긍정적인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청소년이 한국 사회와 자신의 문화를 수용하는 태

도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조운영, 정현희, 2024).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중단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양방향적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과정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은혜, 배상률 (2017). 부모와의 별거경험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입국 후 가족환경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4), 211-232.
<https://doi.org/10.21509/KJYS.2017.04.24.4.211>
- 교육부. (2024, 5. 30).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896&lev=0&m=020402&opType=N&page=1&s=moe&searchType=null&statusYN=W>에서 2025년 9월 11일 인출
- 권오영, 양계민 (2024). 교사지지가 이주배경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30(2), 221-239.
<https://doi.org/10.24159/joec.2024.30.2.221>
- 김민호, 염미경, 변종현, 전영준, 권상철, 황석규, 오고운, 장승심, 홍주희, 류현중 (2014).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story.
- 김소영, 윤기봉 (2016).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추정. *한국청소년연구*, 27(2), 271-296.
<https://doi.org/10.14816/sky.2016.27.2.271>
- 김수미, 김현옥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2016년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 이용-.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 Korean Acad Nurs)*, 52(3), 324-340.
<https://doi.org/10.4040/jkan.22030>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승경, 양계민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이중언어요인, 이중문화요인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11), 147-176.
- 김원영, 정나은 (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 관련변인에 대한 종단적 탐색: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4), 137-164.
<https://doi.org/10.30974/kaice.2020.9.4.7>
- 김윤정, 이진향 (202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다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 131-142.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131>
- 김은혜, 정민아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인식, 이중문화수용태도, 사회적 위축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청소년복지연구*, 26(1), 51-75.
<https://doi.org/10.19034/KAYW.2024.26.1.03>
- 김재훈, 황지연 (2023).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4), 149-184.
<https://doi.org/10.30974/kaice.2023.12.4.7>
- 김한솔, 김규찬 (2023).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63), 1-25.
<https://doi.org/10.20993/jSSW.63.1>
- 노연희, 신서원 (2024). 중도입국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관한 현상학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5(2), 243-266.
<https://doi.org/10.15753/aje.2024.6.25.2.243>
-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박동진, 김송미, 박경아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20(5), 803-812.
<https://doi.org/10.14400/JDC.2022.20.5.803>
- 백정숙, 김현진 (202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7(4), 141-161.
<https://doi.org/10.15284/kjhd.2020.27.4.141>
- 범령옥, 임선아 (2024). 다문화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과 삶만족도의 양방향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5(1), 29-38.
<https://doi.org/10.5723/kjcs.2024.45.1.29>
- 서영우 (2016).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생태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1(2), 55-102.
- 손신영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다문화건강학회지*, 13(2), 1-13.
<https://doi.org/10.33502/JKSMH.13.2.001>
- 안혜진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789-807.

-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2.789>
 여성가족부. (2019. 5. 7).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세종: 여성가족부.
- 유승희 (2020).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문화정체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4(1), 134-158.
<https://doi.org/10.22446/mnpisk.2020.14.1.007>
- 유위, 왕신제, 최지영 (2025).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8(2), 189-206.
<https://doi.org/10.14328/MES.2025.6.30.189>
- 유위, 최지영 (2024). 잠재계층 성장모형을 활용한 중도입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 및 예측요인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7(4), 97-116.
<https://doi.org/10.14328/MES.2024.12.31.97>
- 은선민, 이수현, 이강이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궤적 유형화: 유형 예측요인과 유형별 심리·사회적응. *한국청소년연구*, 30(2), 177-211.
<https://doi.org/10.14816/sky.2019.30.2.177>
- 이덕희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5(3), 77-96.
- 이상은, 최나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경험의 매개효과. *가정과학의질연구*, 39(1), 17-29.
<https://doi.org/10.7466/JFBL.2021.39.1.17>
- 이소연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1), 179-208.
<https://doi.org/10.14816/sky.2018.29.1.179>
- 이수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의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계층별 예측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3(3), 113-139.
<https://doi.org/10.14328/MES.2020.9.30.113>
- 이영주, 이수경, 박륜경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적응 및 학교적응. *교육문화연구*, 23(5), 347-372.
<https://doi.org/10.24159/joec.2017.23.5.347>
- 이정민, 정혜원 (2024).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잠재프로파일 분류 예측요인 및 결과변인 차이 검증. *한국교육*, 51(1), 5-34.
<https://doi.org/10.22804/jke.2024.51.1.001>
- 서현석, 김태균 (2020). 가족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효학연구*, (31), 73-91.
- 이진경, 이혜정 (2019). 이중언어요인과 이중문화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4), 81-100.
<https://doi.org/10.16881/jss.2019.10.30.4.81>
- 이진선, 오종철, 강영숙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중단연구. *보건사회연구*, 41(4), 243-261.
<https://doi.org/10.15709/hswr.2021.41.4.243>
- 이혜미, 김유미 (2024). 중도입국 초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한국어능력 및 학교적응의 중단적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21), 525-539.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21.525>
- 임지혜, 박봉수, 오선영 (2023). 무슬림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경험 연구: 인천 연수구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3), 205-226.
<https://doi.org/10.30974/kaice.2023.12.3.9>
- 정보라, 정문식, 박현승 (2025).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순차적 매개효과. *산업진흥연구*, 10(2), 315-323.
<https://doi.org/10.21186/IPR.2025.10.2.315>
- 조윤영, 정현희 (2024).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중단적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5(4), 231-253.
<https://doi.org/10.14816/sky.2024.35.4.231>
- 홍영균 (2017). 4차산업혁명시대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방안.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2(3), 89-121.
- 황희봉, 주은선 (2023). 부모지지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5(1), 79-102.
<https://doi.org/10.51155/KAMW.2023.5.1.79>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https://doi.org/10.1111/j.1464-0597.1997.tb01087.x>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C. M., Gibbons, J. L., & Hughes, H. M. (2013). Acculturation clusters and life satisfaction. *Acta de Investigación Psicológica*, 3(2), 1108-1121.
[https://doi.org/10.1016/S2007-4719\(13\)70955-4](https://doi.org/10.1016/S2007-4719(13)70955-4)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 7).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https://doi.org/10.1037/0022-3514.88.1.158>
-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https://doi.org/10.1097/00004583-199609000-00016>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th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Park, S.-O., & Bae, S.-M. (2021). The verification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Current Psychology: A Journal for Diverse Perspectives on Diverse Psychological Issues*, 40(11), 5691-5697.
<https://doi.org/10.1007/s12144-021-02177-6>
- Phinney, J. S.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99-514.
<https://doi.org/10.1037/0033-2909.108.3.499>
- Schwartz, S. J., Unger, J. B., Zamboanga, B. L., & Szapocznik, J. (2010). Rethinking the concept of acculturatio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65(4), 237-251.
<https://doi.org/10.1037/a0019330>
- OECD. (2019). *Investing in youth: Korea*.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de626224-en>